

해남군, 추석 물가안정·경기 부양 총력

13일까지 물가 종합상황실운영 9월 해남사랑상품권 10% 할인 공직자·기관 '전통시장 장보기'

해남군이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과 다양한 경기부양 시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해남군은 오는 13일까지 추석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추석 명절 주요 성수품 20종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해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을 수시로 관리한다.

또 물가 모니터링,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물가 점검반을 편성해 전통시장, 상점가,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섞어 팔기, 가격담합, 계량 위반 등 불공정 상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부양을 위한 시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소비촉진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9월 한달간 해

남사랑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한다.

지역상가에서만 사용하는 해남사랑상품권은 올해 들어 805억원, 10% 할인이 시작된 이번 달에만 벌써 17억2000여만원(9월 3일 기준)이 팔려나가며 호응을 얻고 있다.

9월에는 1인당 구입 한도 70만원을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지류형과 카드형 모두 가능하다.

해남사랑카드 또는 QR상품권 결제시 이용자에게 결제액의 5%를 되돌려 주는 캐시백 행사도 지속한다. 캐시백 이용자는 상품권 구매시 10% 할인을 받고 결제시 5% 환급금이 추가 적립이 되어 15% 할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해남문화관광재단은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오는 8일까지 일주일간 2024 동행축제 사은행사를 갖는다.

행사기간 동안 해남읍 상점가에서 5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는 5000원, 10만원 이상 구매시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점포별 합산이 가능하고 1일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지급한다.

은누리상품권이나 해남사랑상품권을 10% 할인

받아 구매한 후 동행축제를 활용하면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받는 셈이 된다.

해양수산부 지원 은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9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진행한다.

환급 행사는 해남매일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 취급 소매, 가공판매업체에서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건어물 등을 3만4000원 이상 구입한 고객에게 구매 금액별 당일 구매 금액의 30%를 은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게 된다. 환급 금액은 1인 최대 2만원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 공직자, 유관기관 등이 함께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힘을 보태고 있다.

명현관 군수도 오는 11일 대목장을 맞아 해남매일시장과 해남읍5일시장에서 장보기와 함께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물가안정 캠페인을 개최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명절맞이 경제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고, 군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완도군, 추석 맞이 '수산물 통 큰 할인전'

전복·김·미역 등 최대 40% 할인



완도 전복.

완도군은 추석을 앞두고 '추석 맞이 수산물 특별 기획전'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신선하고 품질 좋은 완도산 수산물을 할인 가격에 판매해 소비자들이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완도군 특산물 소평물인 완도정장마젓은 12월까지 '2024 풍요로운 추석 기획전'을 열어 활 전복과 김, 미역, 다시마, 멸치 등을 20%씩 할인 판매한다.

(사)한국전복유통협회와남도전복연합회는 '대한민국 수산 대전'을 통해 기본 20%에 추가 20%를 적용해 최대 40% 할인한다.

전복 가격은 1kg 기준 8~9미는 2만5200원, 9~11미는 2만2200원, 13~14미는 2만800원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추석 명절에 맛과 품질이 좋은 완도산 수산물을 가족들과 함께 맛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진도군, 25일 권익위와 '달리는 국민신문고'

진도군이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진도군청 지하 1층 종합상황실에서 2024년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 기관 전문 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지역민들의 고충 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처리하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제도이다.

주요 상담 분야는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00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등 모든 행정 분야와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지적 ▲서민금융 등 협업기관 분야 등이다.

접수된 고충민원은 각 분야의 전문 조사관이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예약은 오는 11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청 기획홍보실로 신청하거나 국민신문고 운영 당일 현장에서 신청해도 된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등 모든 행정 분야와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지적 ▲서민금융 등 협업기관 분야 등이다.

접수된 고충민원은 각 분야의 전문 조사관이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예약은 오는 11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청 기획홍보실로 신청하거나 국민신문고 운영 당일 현장에서 신청해도 된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신안군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망고 학교' 개소

스마트 온실서 5명이 2천주 재배

신안군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망고 학교'를 개소했다.

'망고 학교'는 지도읍에 소재한 균유지에 6600㎡ 규모 하우스형 임대농장 2개소를 건축했다.

임대농장은 환경 설정에 따라 시설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복합환경제어시스템과 전기난방설비와 재배작물,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실 등 내재해형 스마트 온실을 갖추고 2023년 준공됐다.

이번 경영실습 임대농장에 참여한 5명의 청년농업인은 애플망고 2000주를 재배한다.

신안군은 청년연서 구입 임대사업에 이어 청년농업인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응해 미래 먹거리인 시설 농업의 육성과 인구소멸, 지역소멸이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속에서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를 이유를 찾아주기 위해서다.

신안군은 전국 최대 규모인 총면적 4만 2328㎡



지난 3일 열린 지도읍 '망고 학교' 개소식 후 박우량 신안군수 등 참석자들이 농장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신안군 제공>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청년농업인 28명이 커피, 바나나, 애플망고, 딸기 등을 재배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5명의 청년농업인이 미래

신안군 농업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패기로 어엿한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암군 한달만에 영암쌀 1만5000포 판매

지난달부터 '쌀캐팅' 캠페인 효과

영암군이 쌀값 하락에 맞서 추진하는 '쌀캐팅'에 지역사회 안팎의 참여와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영암군에 따르면 쌀값 하락에 대응하고 벼 재배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달부터 군민운동 차원에서 '쌀 캐팅'을 줄인 '쌀캐팅' 캠페인에 본격 돌입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쌀캐팅 실적을 집계한 결과, 한달만에 1만5000포의 영암쌀 판매고를 올렸다.

공직자들이 2300여 포의 쌀 사주기를 시작으로 대불산단 기업과 체육회, 향우 참여로 탄력을 받았다.

재정영암군향우회를 비롯해 서울 은평구 상록새

마을지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산 문명라이온스클럽 등에서 쌀캐팅에 호응해 구매에 나섰다.

영암군은 6-7일 서울 은평구, 9일 광주 서구 등 직거래장터를 계속 이어나간다.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장 '영암몰'에서는 13일까지 추석맞이 할인전도 진행한다.

'달마지쌀'을 구입할 경우 영암군의 예산지원을 받아 10kg에 2만 667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 가능하다.

우승회 영암군수는 "건강한 고품질 영암 쌀을 소비하고 지역 농가도 살리는 영암군 쌀캐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목포어울림도서관, 하반기 정기 프로그램 운영

원예 치료·프랑스 자수 등 6개

목포어울림도서관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하반기 정기프로그램 6개를 개설하고 주야간으로 나누어 다채롭게 운영한다.

이번 하반기 정기프로그램은 ▲그림책 양육

감정 치료(주간) ▲원예 치료(주간) ▲프랑스 자수(주간) ▲요가(주간) ▲식물로 만드는(보테니컬) 수채화(야간) ▲캘리그래피(손 글씨를 이용해 구현하는 시각 예술-야간)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를 원하는 이는 오는 13일까지 목포시통

합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무료로 신청 가능하며, 도서관 이용자 및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 통합도서관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목포어울림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어울림도서관이 준비한 하반기 정기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평생학습 활동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무안군 귀농귀촌 홍보 공로 우수 지자체상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 참가

무안군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3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A Farm Show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에 참가해 귀농귀촌 유치홍보에 적극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지자체상을 수상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무안군은 상담 부스 운영을 통해 현장을 방문한 도시민들에게 일정한 기간 체류하

며 영농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무안군 체류형 귀농인의 집, 전남에서 살아보기 등 다양한 지원정책과 예비 귀농인에게 적합한 교육을 안내하는 등 1대 1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또 박람회 기간 중 aT센터 교육장에서 무안군으로의 귀농을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귀농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차별화된 귀농귀촌 지원정책과 정보를 제공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